

신랑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 총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6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사순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계 21:2)

사순절(3월 1일~4월 15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말합니다. 특히 40이라는 숫자의 성경적 의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가후 후 사역을 시작하셨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고, 이삭도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간 금식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며 사바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의 40일 동안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즉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영적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은 심령은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참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중의 금요 집회 때에는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 금요일(4월 14일) 금요 집회 때에는 온 성도와 예루살렘을 꿈꾸는 찬양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며 성한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과 특별 찬양을 준비하는 금요 집회에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3월 1일~4월 9일)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별적으로 말씀과 기도,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은총의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월 교회 일정

1일(수)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월 1일~ 4월 9일)
5일(주)	2006년 제2차 성찬식 (1부~5부 예배)
8일(수)	3월 정기 당회 및 인사 당회
19일(주)	일꾼 후보 공고(주간총현)
26일(주)	공동 의회(4부 예배 후)
29일(수)	4월 정기 당회

*새가족 등록 시간 안내(새가족 등록실 / 내선212)

월요일 8시~8시 45분 / 수요일 12시~12시 30분 / 금요일 30분 전

개여,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 집회)

그리스도의 영광 (마 23:37)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도덕이 회복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성, 가정의 가치관, 사랑과 자비, 정의와 우애를 회복시키고 향상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종교와 믿음이 이 세상, 사회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저들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엡 6:12).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신감추를 취하여 한다. 말씀에 담겨서 신자들은 능히 악의 영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며 담대히 알라야 한다.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해할 때에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엡 5:8,11,16,17).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승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것을 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의 권위를 그 무엇보다도 바랄 수가 없다는 것도 안다(엡 4:21-24).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순종하면 되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가볍고 쉽다(마 11:28-30; 눅 9:23).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한다(마 14:6).

이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에서 그의 영광을 대히요 원한다(마 23:37).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혹독한 말씀을 담고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지회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회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지회는 말만 하는 자들이다. 무거운 짐을 남에게는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부터 무려 7번(마 23:13,15,16,23,25,27,29)이나 “하 있을진대”를 토시었다(마 23:33).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특히 그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동정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간접적으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예루살렘 안에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이 그 수많은 영혼들을 당신의 날개 안에 모으려 하셨다고 말씀하신다(산 32:11,12). 이 한 인간이, 분명 엄청난 그 무언가를 증거하고 있음을 틀림없다. 다윗이 찬송으로 높이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시 91:1,4). 모세가 노래하였던 바로 그분이고 누구시겠는가? 또한 보아스가 뜻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말씀 속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시라는 것이 아닌가(겔 2:12)!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의 역사를 선포할 때, 또한 천지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가장 높은 신 경배를 돌리는 곳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하나님 하나가 모두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여 준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증거하는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연설시켜 이해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 은혜의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뛰어난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바라보지 못할 때에 그의 은혜를 높이고 마는 것이다(롬 8:32). “예루살렘!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마 23:37). 이 말씀을 통하여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은총이다. 그들이 비록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보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해도 그의 날개 아래 모으시기를 원하는 그의 열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드러운 동정과 은총이 그의 속성을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에게로 이끌 수 있었는가? 바로 어린 생명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그들에게로 펼쳐진 그의 긴 팔이 최고의 신적인 광경 안에 있음을 믿는 신자들이 바라보게 될 때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그의 영광과 은혜, 장엄하심과 부드러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질투와 의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녹아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머리 숙여 주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소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는다. 아멘.

LISTEN TO HIM

While he was still speaking, behold, a bright cloud overshadowed them; and behold, a voice out of the cloud,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pleased; listen to Him!" (Matthew 17:5)

Everybody listens to somebody. To whom do you listen? Everyday different voices surround you. Some are good, leading you on the narrow path toward heaven, and some are bad, guiding you down the broad way toward hell. As you live this life, you hear things from many people. When it comes to advice, I hope most of you prefer listening to someone who is wise rather than someone who is foolish.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to whom you listen, and write them down on a sheet of paper. Now, look at your list. Who is at the top? Is it a family member, friend, colleague, or famous person?

In today's Bible verse, three of Jesus' disciples (Peter, John, and James) heard God's voice. They had followed Jesus to the top of a high mountain. Right before their eyes, He transfigured;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light. They saw the Lord in His body of glory talking with Moses and Elijah. As Jesus was speaking, a bright cloud overshadowed them, and a voice out of the cloud began to speak to them. It was God's voice. God said, "This is My beloved Son, with whom I am well-pleased; listen to Him!" Do you listen to Jesus Christ? So many Christians do not listen to Jesus. They will listen to whoever gives them favors, like their parents or church friends, but not to Jesus. During this Lent season, you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listening to Jesus Christ. He should be at the top of your list.

After telling the parable about the man who left ninety-nine sheep in a field to find one lost sheep, Jesus said,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ninety-nine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Lk. 15:7). He also said, "In the same way, I tell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Lk. 15:10). Jesus looks for the lost sinners. They are very important to Him. He searches for the lowly. Who do you look for? Most people prefer meeting the wealthy, beautiful, and well known, not the poor sinners. Do you proclaim Jesus Christ to the poor people, so that they can repent and receive salvation? What is important to you determines who you look for. Nowadays, Christians spend more time looking at the television, internet, and newspapers than for those in need of Jesus Christ.

Jesus said, "Truly, truly, I say to you,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does not come into judgment, but has passed out of death into life" (Jn. 5:24). Do you believe in God? Do you really believe in His word? Believing in God and listening to Jesus Christ are what being a Christian is about. God's word tells you,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16). Jesus saves sinners. He gives them

eternal life. Do you really understand His importance? Do you really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istening to Him? It is liter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Eph. 2:1).

During this Lent season, I want you to take the time and read the four gospels (Matthew, Mark, Luke, and John), paying careful attention to what Jesus said. Think about His words, and ask yourself whether you are really practicing them in your life. Why did Jesus humble Himself to leave heaven and come to earth? He came to save sinners. He wants you to repent. If you do not listen to Him, you cannot repent. People who do not listen to Jesus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excluded from the life of God because of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because of the hardness of their heart" (Eph. 4:18). Real trouble comes to you when you do not listen to Jesus. If your work, school, family, friends, or whatever is going on in your life is more important than Jesus is, you are in trouble.

If you want to listen to Jesus, then read your Bible. Many people look at the Bible as a good thing, but if they read it without finding Jesus, they will not be able to understand it. John 5:39 tells you,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it is these that bear witness of Me." The whole Bible tells the story of Jesus. If you miss Him, then there is no way for you to understand what you are reading. If you search for Jesus, then the Holy Spirit will come into the deepest parts of your heart and open up your spiritual eyes. He will help you to understand what Jesus says, so that you can hear His voice. If you do not believe then this cannot happen, "But you do not believe because you are not of My sheep.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Jn. 10:26&27). Do you know why people do not listen to Jesus? It is because they do not think they are sheep. They see themselves as something more beautiful. They are not humble, and refuse to place themselves in such a lowly position. Their pride keeps them from Jesus.

Jesus sai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but through Me" (Jn. 14:6). There are not many ways to the Father in heaven, only One-through Jesus. You need Jesus. You need Him more than you need anyone or anything else in your life. God's voice instructs you to listen to Jesus. If you can hear God's voice, then listen to Jesus, for God wants you to listen to Him! This Lent, please concentrate on what Jesus has said. He cried out,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Amen. 

다들 주일 설교

저의 말을 들으라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태복음 17:5)



김성관 목사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어떤 말들은 선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로 이끅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악하여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넓은 길로 끌고 갑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자의 말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자신이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이제 그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제일 첫째 줄에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나 회사 동료 혹은 저명한 인사입니까?

말씀을 들으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제자(베드로, 요한, 야고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해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스런 몸을 입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5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나 교회 친구들과 같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건자 명단의 맨 첫 줄에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양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남겨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간 사람의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예수님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은 주님께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천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이름답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죄인들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은 만민 사람들을 청할 때에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보다 TV나 인터넷, 신문을 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내어 4복음서(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총령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서 떠나 있도다"(엡 4:18).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생깁니다. 사립과 학업, 가정, 친구 혹은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은 책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다면 결코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5:39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놓쳐 버리면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성경에서 마음 원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성경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6,27).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좀더 고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겸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면 비천한 자리에 내려 놓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하늘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 혹은 그 누구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임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 7:37,38). 아멘.

수요 1부 예배 메시지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골 2:12-15)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다. 우리 주변을 보라. 그리스도 없이 자신의 공로와 노력으로 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곧 기도가 없는 것이기에 결국 무엇을 하든지 흔들려 넘어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동했던 사람들의 배후에는 그들의 힘과 노력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 기도의 호흡이 없는 절대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시작된 사순절기도 기도가 없는 절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거나 따라갈 수 없다. 진정 기도의 문이 우리의 호흡처럼 열리기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기도 없이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골 2:12).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렘 21:3). 자신의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마음을 엮으며 주님께로 돌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기 원하신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 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눅 9:23). 다른 종교도 가장 먼저 회개를 말하지만 이들의 회개는 자신들의 노력을 통한 회개이다. 이것은 참 회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회개만이 진짜이다(데 23:27, 25:9).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이다. 죄의 문제를 회개해야만

주님께 갈 수 있다(신 4:29-31, 30:2,3,8).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다. 재(Ash)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다. 다윗은 고백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음에는 눈물을 섞었사 오니”(시 102:9). 요나의 메시지들은 들은 너는 왜 왕과 백성들은 굶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나(산 3:6). 욥도 재 가운데 앉았다(욥 2:8). 에셀서를 보라.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릎 쓰며 재 가운데 굶어”(겔 27:30). 우리도 재(Ash)를 뒤집어쓰고 자신을 진실로 깨뜨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주님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령을 원하신다(시 51:17). 주님 앞에 완전한 향복이 있어야 한다. 사순절의 전통 가운데 하나는 재를 이마에 받는 일이다. 사순절에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한 후에 목사님 앞에 가서 재를 이마에 찍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마에 찍힌 재를 보며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찬 332장).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리놓고 회개하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요 3:16). 은총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야 한다.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은총을 깨달을 자는 고백한다. “형제들아 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라. 자존심, 명예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라! 매 순간 살아나는 자신을 보혈의 은총으로 깨뜨려라. 회개만이 살 길이다. “비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사순절기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실재를 살펴 온전히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은총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 아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권사회



김은숙
(권사, 권사회장)

지난 금요 집회 때에는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인들, 권사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 찬양 드렸습니다. 비록 나이 들어 소리에 힘이 없고, 음악적인 것은 많이 부족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권사의 사명과 역할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권사회는 50세 이상의 권사 직분을 받은 자로 구성되며, 모든 권사는 4개 지회에 소속되어 각자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연속기도는 모든 권사들이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월 1회 참여하는 이 시간을 통해 전 지회의 회교를 위해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선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 주일 식당 봉사를 출발하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춘천기도원에서 화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손이 부족한 기도원에서 식당 봉사를 비롯하여 예배 치소, 속소, 화상실 등을 청정하는 일입니다.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주님이 배부른 은혜를 깨달으며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가정 안에서 한 남편의 아내이며 자녀들의 어머니인 권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신실한 종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에 언제나 자기 주장,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저의의 죄성을 회개하며(마 4:17)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마 16:24)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권사들만의 몫이 아니라 온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성취하며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5월 29,30일에 열릴 권사 수련회 때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제로 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작은 부스리기 같은 회회이지만 주님의 손에 봉헌하여 선교지에 십자가를 전하는 회교를 세우는 일에 임하고 싶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저 길

“인생의 길 갈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쳐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 길 평생에 행한 일 돌아보니 못 다한 일 많아 부끄럽게 아버지 사자라 내 놓으시라” 세상 기의 기준으로 저의 권사들은 이제 살아 온 날마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나이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남은 일은 오직 저 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결론으로 제사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라는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얻으리라”(고전 15:58)는 말씀과 같이 “희망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권사”들이 되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의 고백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젊은이들의 간증문)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0일(월) ~ 2월 28일(화)	외선부	홍순길
2월 21일(화) ~ 3월 1일(수)	직 원	손정애

주님의 때에

선교 준비 시작부터 오늘까지 단 한 순간도 주님은 저를 놓치 않으셨습니다. 선교는 주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하며 시간과 고통이 따를 거라는 생각이 선교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가장 적합한 시기에 단기 선교사로 사용하시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내 주셨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에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하였 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회개 의 영을 부어 주셨고, 단련시키시며 부 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 주셨습니다. 덕분에 선교지 땅을 밟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감사 기도도 시작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걸어갔던 일 들을 마무리하면서 놀라워하고, 신기해 하면서 부끄러웠던 것들을 회개하였을 뿐입니다.

첫 사역지에서 만나게 하신 어린 영혼 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가슴이 벅차올라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 비록 의사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 으나 성경에서 준비하신 후에 만나게 해 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 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글 읽는 어린이의 얼굴을 통해 주님의 말 씀을 듣게 하시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 게 하셨을 때 성령님의 은혜는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역사하였습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선교지에 보 내시고 동행하셨기에 사역 기간 내내 회 개와 감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미경(벨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어 하는데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교만함이 이번 선교에서 해 결될 문제였습니다. 나의 교만함은 선교 준비 마 지막 날에 완전히 깨져 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죽 어지고 주님이 살아 계신 사역은 그 자체가 감사 와 은혜였습니다. 한 마을에 집중하며 그 곳의 영 혼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 하게 하시고 눈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김아슬)

나의 지식이 열심,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님께 의지해서 사역을 하면서 더 큰 기쁨과 십자 가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날씨는 덥고 목이 아파도 목이 지쳐가는 상황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멈 출 수가 없었던 것은 진실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과 은혜였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영적 기도를 하고, 글은 못 읽지만 초콜초콜 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아이들,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점차 복음에 귀를 기울이던 사 람들! 주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영혼들을 만나면 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계서연)

전도지를 비롯한 전도 물품을 하나도 가지고 가 지 못해서 처음에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전도지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이들에 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언어라도 쉬우 면 그나마 복음 전파가 수월할 텐데...’ 이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 볼 때 너무 두렵고 답답했습 니다.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는 것은 아 니가?’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 때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들렸습니다. “자 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라.”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 하였습니다. (오찬양)

“과연 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저 주님이 하시 겠지. 부족해도 하게끔 만드시겠지.’ 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 능력으로 그들을 대할 때 나의

나약함과 언어의 부족함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 다. 매 순간 먼저 주를 안 자들이기에 그만큼의 열정과 들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간절함으로 구했 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었기에 우리의 열정과 간절함이 앞서서 슬픔이나 아쉬움이 남는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전하고 도구로 쓰임받았음에 넘치는 기쁨 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정미현)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는 분명 죄인이 맞습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른다고 하였는데 이 선교지에 나와 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연약하고 취약된 본성을 아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아시고 무리로 기도하게 하시며 순종케 하셨습니다. (이록희)

사역 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약한 상황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질퍽거 리는 땅을 밟으며 집집마다 찾아가는데도 제대로 들지 아니하려는 모습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때 주님은 삭개요 같은 할아버지를 보내 주셨 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보고는 지나치려 하는데 멀리 문 밖으로 뛰어나와 저를 초대해 주셨고, 눈 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돌보기를 써 가며 전도지 를 함께 읽고 복음을 영접하셨습니다. 정말 감사 하고 기뻐합니다. (염혜일)

대학 1학년 때 처음 선교갔을 때 주님께 약속 드 린 것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선교를 나가서 8번을 가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약속이 매번마다 이 루어져서 이번이 꼭 8번째가 되는 선교였습니다. 그간의 선교의 경험! 나를 교만해지게 만들거나 식상한 마음이 들게 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 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들었 기에 그럴 여유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꼭 빠져 사역 기간 내내 웃으며 참 행복하였습니다.

(김두리)

[2006년 제1차 청지기 훈련을 마치교]

“그리스도인의 바뀌어진 삶”(갈 2:20)

◆죄인에게 일어난 기적!

모태 신앙으로, 40여 년 넘게 보혈에 든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보다는 나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육신의 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야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금요 집회에 나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어린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지만 2월 7일, 이제 곧 있을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수송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열흘 만에 청지기 훈련에 참석한 저는 저의 바뀌어진 삶을 위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갈 2:20) 실라는 은총의 기회였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저의 전부를 내려놓겠습니다. 정우원(집사, 6교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는 내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습관적인 신앙인이었으며, 업으로부터 주님을 시인하며 믿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과 가족과 직장 등 세상 것들을 더욱 사랑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며 교회 안에서 적당히 봉사하면서 ‘이 정도의 믿음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금요 집회에 늘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 하였지만 이번 청지기 훈련만큼은 미리 와서 은혜를 사모했던 저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교환된 삶, 바뀌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함정무(집사, 15교구)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삶을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목적대로 이끄시도록 하는 것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학업, 진로, 결혼 등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맞춰 나아갈 때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삶이 아닌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

으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길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에 매인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삶,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진 삶’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은경(대학부)

◆교만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내가 있었고, 내 안에 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외면하고 무시했는지!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던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히 피 흘린 주님을 위해서 저의 전부를 내어 드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간졌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영미(집사, 2교구)

◆주님 사랑합니다!

요즘 들어 앞일에 대한 걱정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청지기로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만이 내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번 청지기 훈련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와 같은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나와 가정과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권형순(권철, 7교구)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죄인 중에 피수였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그 동안 살면서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나만 잘났다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과거에 집착하여 살아온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바울의 고백(갈 2:20)이 진실로 죄인인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며 행하는 교환된 삶, 바뀌어진 삶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김흥선(집사, 8교구)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매번 청지기 훈련에 선포되는 말씀을 의무와 나의 의지로만 깨달아도 했던 저의 교만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였지만, 이 모든 나의 준비보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바뀌어진 삶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주님이 베푸신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손선(권사, 14교구)

◆더욱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나의 뜻과 나의 의만 내세우며 살아왔던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육신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명의 길은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전부를 내어 드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부터 나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이숙혜(집사, 1교구)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배 때 은혜받고, 찬양을 부르면서 받은 감동은 그때뿐, 돌아서면 십자가의 예수님은 없고 나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고, 청지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저의 곁에 있었고, 강력한 저의 마음을 찢으실 때에도 저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꼭 해야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몸을 주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시원(집사, 11교구)

교회 탐방 99 청년 2부(최승민 조)

젊은 그대들이여! 청년의 날에 이미 생명의 길을 확정하고 한 점의 욕도 없이 그 길을 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여! 이번 주 탐방은 이를 도식하려는 청년 2부이다. 그들 속의 그리스도를 만나다.

청년 2부의 최승민 조를 소개해 주십시오.

청년 2부에는 모두 8개 팀이 있고 한 팀에는 2~3명의 조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 한 조입니다. 8각주 16명의 조원이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 30대의 부부들입니다. (최승민 조장)

조원들이 기거하러 따르는 목표는?

첫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둘째, 개인별로 말씀과 찬송을 가까이 하며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셋째, 십자가 복음의 빛이 차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조원들이 되는 것이 올해 저희의 목표입니다. (최승민)

주님께서 '절대 그로 통행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입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살면서 공동의 고민을 나누고 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얻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노정환)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공동체들과 아주 구체적인 경험들을 나누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안영아)

교회 안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2부에서 만났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수직적 관계는 많지만 교회에서처럼 수평적 관계는 드물다. 이곳에서 다른 형제들의 신앙을 보면서 도전받고 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면 하지도. 이곳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주어진 삶의 숙제를 풀기도 하면서 청년 2부에 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구자균)

저는 한 달만 혼자 청년 2부에 나왔습니다. 그때 부부가 함께 나

기도의 힘!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많이 부러워서 남편이 나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더더욱 남편과 함께 나오게 되어 아주 더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지속되는 영적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아주 용이해졌습니다. (김성영)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의 영혼 구원 문제를 두고 기도를 보며서 초대 교회의 딱을 때는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재충전받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영적 풍요로움이 아닐까요? (손영호)

공동체 안에서 저들끼리 고백하듯이. 애정사를 함께 나누는 것은 물론 주중에도 조장님의 문자를 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수)

어떤 동기부여와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나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그리스도께 인도받았고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하고 그 자매에게 믿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섬깁니다. (김경민)

남편의 인도로 신앙 안에서 일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심연숙)

저는 청년 2부에 나오게 된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홀로 있어서 외롭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아서 혼자 나오지만 언젠가는 남편도 믿음의 동역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일에 조원들을 만나 한 주간의 일들을 털어 놓고 힘을 얻습니다. (홍경희)

삶과 신앙에서의 모습은?

당면이 삶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를 하느라 잘 나오지 못 하지만 아내가 청년 2부에서 받은 내용을 전달해, 참 온기가 됩니다. (백승선)

때때로 신앙 생활과 가정 생활이 갈등을 빚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믿음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저의 가정을 세우시길 것을 확신합니다. (성은경)



앞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연초에 각자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백인정)

지엄한 한 주관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옛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구자균)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한성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홍경희)

영적 자매를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기에 공동체가 중요하합니다. 청년 2부가 신앙 생활의 귀지입니다. 먼저 거기에 속하기 되고 이후에 봉사할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영호)

청년 2부의 구성원은 모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기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한 가정씩 장어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년 2부의 힘입니다. (백인정)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아들을 만나는 내내 늘 수 있는 은혜였다. 기도로 시작하여 감사 기도로 끝나는 아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넘칩니다. (권진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내 영혼의 찬양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길게 느끼게 되고, 힘을 얻고, 부를 때마다 감동을 받는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신다. 내가 볼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켜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었던 나는 찬양대에 들어갔다. 찬양을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로 그런 것이다.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진다. 정말 귀에 은은히 들리는 것 같다. "주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친구이신 주님께 가져다끼린 믿음을 달라고 매일 간구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지 말라 하신다. "우리 서로를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구절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감동과 그 기쁨을 그 누구도 측량치 못하고 예상도 못할 것이다. 정말 친구 같으신 분, 세상 모두 날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날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믿는다. 내 믿음은 비록 먼지보다 작으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주연(엔비 찬양대)

♡ 새 · 가 ·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21	이은이	4	청년2부	권진숙(주)	741	양순선	6	청년2부	김영희(17)	761	보시프	19	외선부	이태희(3)
722	김주연	13	중동3부	김정자(7)	742	김계호	3	청년2부	김기환(10)	762	비트루테	19	외선부	김창식(12)
723	손민영	9	고등부	김성혜(16)	743	정성호	1	청년1부	정기우(1)	763	다무아르	19	외선부	김창식(12)
724	이영숙	15	청년1부	김희숙(15)	744	김민수	9	고등부	백정숙(18)	764	오코나비르	19	외선부	김창식(12)
725	김민서	8	청년1부	김종홍(8)	745	윤지은	19	대학부	이창희(14)	765	블로르	19	외선부	김창식(12)
726	황영실	9	청년1부	이흥우(4)	746	이규주	15	청년2부	이수애(16)	766	일선	9	청년1부	이영숙(8)
727	최민비	19	대학부	김정희(15)	747	김금희	13	청년2부	박종현(15)	767	윤옥분	7	청년2부	윤옥분(12)
728	최미리	19	대학부	김정희(15)	748	이성일	13	청년3부	유지숙(18)	768	나론	19	외선부	박재현(18)
729	박효진	19	대학부	박영숙(12)	749	이성일	12	청년1부	김영준(12)	769	박영희	12	청년1부	박종현(12)
730	김정숙	5	청년3부	윤옥분(12)	750	이영민	9	고등부	왕영숙(15)	770	청년1부	청년1부	박종현(12)	
731	박민우	19	대학부	정경숙(12)	751	이순재	13	해마다부	박정희(3)	771	이성규	19	대학부	고홍식(14)
732	김유식	1	청년1부	구원희(1)	752	신진규	9	사령부	박재현(17)	772	박성호	3	고등부	황순환(8)
733	최선숙	2	청년2부	유정자(8)	753	이진희	19	중동2부	심지숙(17)	773	한희수	1	대학부	김 옥(1)
734	박옥실	15	청년2부	김종현(15)	754	주정혜	19	대학부	김학희(15)	774	박기영	19	청년1부	강예스(18)
735	정은영	15	청년3부	이준희(15)	755	최정연	9	청년2부	권예스(14)	775	최정아	2	청년2부	이승현(12)
736	김희선	17	청년1부	김희숙(15)	756	김미영	19	청년1부	이영주(17)	776	김은실	16	청년2부	신희숙(15)
737	박민비	16	청년2부	김정희(15)	757	라미라	1	외선부	이선숙(14)	777	김길희	14	청년1부	박남희(15)
738	이영실	9	사령부	박정숙(18)	758	김정혜	9	청년2부	홍지숙(14)	778	김다은	19	대학부	조영민(11)
739	박현주	15	청년2부	박소주(14)	759	김영수	6	청년1부	한윤경(10)	779	박지영	19	대학부	이영희(14)
740	김숙자	1	청년1부	노현희(14)	760	제 나	19	외선부	황정민(14)	780	전종훈	19	청년1부	정창진(14)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로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구분	시간	장 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말 부	오후 12:15	갈 락 힐
사 랑 부	오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이바이	오전 9:00(약국) 오후 1:00(성당)	제2교육관 1층
택 타 부	(주)오랜풍 9:30 ~ 4:10 (단)오 9:30 ~ 2:00	교육관 110호
새기작방우부	오후 12:15	메 디 홀
충현이먼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국선재인교구부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전대천교회교부	오후 11:00	아 연 홀